

수령님,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북한 영화 속
가정의 모습으로 읽는
수령의 당부를 찾아가며

지은이 : 윤채림

수령님,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북한 영화 속 가정의 모습으로 읽는
수령의 당부를 찾아가며

수령님,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 북한 영화 속 가정의 모습으로 읽는 수령의 당부를 찾아가며

지은이 : 윤채림

편집 : 윤채림

등록 : 2020년 6월 16일

주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화 : 010-6828-9912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윤채림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1. 북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2. 알고 보면 더 잘 보인다!
 - 2.1 북한 영화, 뭐가 그리 다른데?
 - 2.2 주체사상이 왜 중요해?
 - 2.3 사회주의 대가정이 대체 뭐야?
3. <한 녀학생의 일기>, <해운동의 두 가정> 어떤 영화길래?
 - 3.1 영화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 3.2 갈등이 형성되어 해소되기까지
4. 가정을 관찰하면 메시지가 보인다!
 - 4.1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 4.2 이 시대의 현모양처, 어머니
 - 4.3 불만 가득, 그래도 할 건 하는 딸
 - 4.4 그래서 수령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5.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가족의 의미로 통용되는 범주 및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칭함에 따라 나도 이 범주를 가정이라고 저술했다.

1. 북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북한의 인류학 수업을 수강하며 북한식 선전을 수도 없이 많이 알게 되었다. 공연예술, 포스터, 길가에 떡하니 쓰여있는 문구, 수필, 문학, 영화, 조선화 등등이다. 북에선 선전이 눈과 귀 앞에서 자기 존재를 강하게 주장한다. 내 생각은 이랬다. ‘진부하다 진부해. 저런 선전이 먹힌다고?’ 그렇다. 먹힌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왔다. 북한 사회에서 어떤 몸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북한의 선전을 보고 행위하라.

내가 다양한 선전방식 중 관심을 가진 도구는 영화였다. 남한 영화와는 사뭇 다른 북한 영화에 흥미를 느껴 이 영화, 저 영화 찾아보던 중 <한 녀학생의 일기>와 <해운동의 두 가정>이라는 영화를 시청했다. ‘어라, 영화를 통해 어떤 아버지가 될지, 어떤 어머니가 될지, 어떤 딸이 될지를 이야기하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화가 특정 메시지를, 가정 내의 역할의 이상적 행위를 의무로 부여하며 교훈으로 전달하고자 함을 느꼈을 것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이상향이 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여진 내가,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통한 공적 영역의 성공을 도모하는 북한 사회의 이념을 발견한 것은 실로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영화가 사적 영역이라고 범주화되는 가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이를 공적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 발전

을 위한 일을 어떻게 도모하고 존경하게 하는지 그 흐름을 짚고 싶었다.

<한 녀학생의 일기>와 <해운동의 두 가정>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갈등이라는 소재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영화는 서사, 대사, 가정 내 역할, 가정 갈등의 이유, 해소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나는 이 유사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두 영화의 서사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아버지와 가정 사이의 갈등의 생성과 해소이다. 갈등을 구성하고 해소하는 가정 내 역할자인 아버지, 어머니, 딸은 유의미할 정도로 젠더적으로 동일하고 이상적이다. 이에 본 저서의 첫 번째 목표는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이상적 가정 역할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설명해내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영화를 통해 수령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앞선 목표를 총합해 도출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로 전영선의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에서 시도한 영화 문화 번역을 차용하여 영화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 영화와 젠더적 측면, 아버지 수령, 사회주의 대가정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선행하고자 다수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북한 사회에서 살아내기 위한 몸짓이 궁금한 자, 다음 장을 펼쳐보시라!

2. 알고 읽으며 더 좋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이전에, 본 연구를 관통하는 범주인 북한 영화와 주체사상, 사회주의 대가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1 북한 영화, 뭐가 그리 다른데?

북한 ‘영화’라고 해서 남한의 영화와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남한의 영화가 상업적이라면, 북한의 영화는 선전과 정치 그 자체다. 북한의 영화는 정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따라서 당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으며, 내가 연구한 <한 녀학생의 일기>는 김정일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영화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영화를 포함한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왜 선전에 사용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전영선의 논문에서 “이야기 방식을 통한 교양 사업이 대중들에게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북한이 이야기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내면화에 있다. (중략) 논리적 설득보다는 감성적 공감과 경외를 통한 체제전략 수단으로서 이야기의 유용성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전영선, 2008:174)를 인용할 수 있다. 북한은 인민 전체의 감성적 동화를 도모하고 원한다.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당국이 제시하는 가치들을 내면화하여 주체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라는 방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선전에 사용한다. 북한 당국에게 예술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인민들이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다.북

한 외부의 시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담지하고 있는 폭력적인 이미지만을 상상해 상에서 하로 강제성을 갖고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인민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을 웃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명자는 북한 지도부가 새로운 젊은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상투적인 표현과 내용보다는 영화의 대중성과 오락성을 점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화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이명자, 2007:197)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인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사회 내에서 영화는 선전의 도구이자 인민의 유희를 위한 예술이라 볼 수 있다.

2.2 주체사상이 왜 중요해?

영화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행위하는 등장인물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문학사전』을 저술한 이명재의 정의에 따르면 주체사상이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을 지녀 의지를 갖고 혁명을 실현해나가는 사상이다.(이명재, 1995) 국가 발전을 위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해나가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주체’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최대석과 현인애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방법은 수령으로부터 옳은 지도를 받을 때이다. (최대석, 현인애, 2007:265) 수령은 인민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이고 올바른 방식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수령이 시키는 것을 잘 하면,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이다.” (앞의 논문 :266)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체형 인간은 수령이 하사하신

‘정치적 생명’을 빛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지영, 2015)

정리하자면, 영화를 통해 배워야 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이 몸이 바로 북한 사회가 원하는 몸이다. 따라서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2.3 사회주의 대가정이 대체 뭐야?

마지막으로 수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령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회주의 대가정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통일부의 정보에 따르면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통일부,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대가정론은 국가의 이미지가 가정의 이미지로 확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인민은 자식이다. 따라서 북한에는 혈육이 구성하는 가정과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전자의 가정이 후자의 가정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는 일심단결이다. 이것은 수령이 대중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고, 그에 대해 대중이 충성과 효성을 보답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노혜미, 2008:45)

이 포인트는 영화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 가정의 일심단결 태도의 실천은 사회주의 대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회를 하나의 가족체로서 서로 믿음과 사랑, 충과 보호를 다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수령의 염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3. <한 녀학생의 일기>, <해운동의 두 가정>

어떤 영화길래?

3.1 간략한 줄거리 소개

<한 녀학생의 일기>는 2006년 북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상영시간은 94분이고, 감독은 장학인, 출연으로는 박미향, 김진미, 김철 등이 있다. 김정일이 직접 스토리와 편집, 촬영을 지도한 영화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상영도 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NK chosun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상영 시에 매일 관람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¹⁾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과학자 아버지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어머니를 보며 부모와 갈등을 겪는 딸의 이야기이다. 딸은 과학에만 매진하여 가족들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원래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극심한 서운함을 느낀다. 영화는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모습, 딸의 생각의 변화 등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NK chosun, <北,과학자 가정 소재 영화 제작>,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 2020.6.8

<해운동의 두 가정>은 1996년 동일하게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하였다. 상영시간은 93분이며, 감독(연출)에 리관암, 리근호, 박금실, 리지영, 홍금란 등이 연기하였다. <한 녀학생의 일기>와 달리 이 영화가 북한 내에서 인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해운동의 두 가정>에는 영화 제목이 암시하듯 대비되는 두 가정(A와 B)이 등장한다. A 가정은 과학연구에 매진하느라 가정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하는 남편(아버지)를 둔 가정이다. 다른 한 가정(B)은 이미 과학 성과를 따 놓았기 때문인지, 가정과 개인의 실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는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가정은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A는 남편이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아내가 지쳐 갈등이 발생하고, B 가정은 가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비판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북한의 말에 따르면 위 영화는 “가정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려는 한 과학자의 가정과,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다른 가정을 대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을 보여준다”고 한다.(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 1996)

이후 나는 두 영화의 자세한 서사를 갈등 형성, 절정, 해소로 나누어 서로 교차하며 분석할 것이다. <해운동의 두 가정>의 B 가정의 경우는 극단적 대비를 통한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 녀학생의 일기>와 A 가정과 다소 다르다. 따라서 B 가정의 서사는 **4. 가정을 관찰하면 메시지가 보인다!** 에서 부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3.2 갈등이 생기고 해소되기까지

형성

갈등의 형성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자. <한 녀학생의 일기>와 <해운동의 두 가정> A 가정의 갈등의 이유는 같다. <한 녀학생의 일기>의 딸은 연구에 매진하느라 가정에 무심한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럽고, <해운동의 두 가정>의 A가정은 연구에 매진하느라 가정에 무심한 남편이 밉은 것이다.

수련은 밤이 늦도록 아버지의 연구를 위한 번역 작업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엄마 아버지는 지금껏 공장 가서 뭘 했어요? 경호 아버진 박사됐대. 우리 아버진 박사될 생각은 전혀 안 하나? 난 아버지 때문에 정말 창피해. 오기만하면 가만 안 있을래”

하지만 어머니가 내일 아버지가 오시니 한번 말 해보라고 하니, “진짜 아버지 오시나? 이야! 아버지 빨리 왔으면” 하며 설레여한다.



사진 1. <한 녀학생의 일기>, 24:15

(사진은 저자가 직접 유튜브에서 캡처한 사진이다. 이하 동일하다.)

사진 1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도 연구에만 매진하는 모습이 다. 위 장면에서 할머니가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이랑 얘기 좀 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허허…” 하며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이다. 주인공 수련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짙어져만 간다.



사진 2 <해운동의 두 가정> 19:24

사진 3 <해운동의 두 가정> 19:47

사진 2와 3은 <해운동의 두 가정>의 A 부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면이다. 어느 날 A가정이 B가정의 집에 방문했다. A의 남편이 니켈과 관련된 책을 빌렸는데 돌연 책을 얻었으니 연구를 마저 하고 싶다며 자리를 뜨고자 한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남편의 바짓자락을 잡으며 눈치를 주지만,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뜨고 분위기는 이내 싸해지고 만다. 갈등의 시작이다. ‘B 가정의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 다정다감한데, 내 남편은 이런 것 하나도 못 해주나?’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절정

<한 녀학생의 일기>에서 어머니는 결국 병에 걸려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한다. 이 소식을 알리러 수련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가지만, 아버지는 일이 바빠 가지 못할 것 같다며 편지를 전해달라 한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수록 깊어진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철면피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것으로 아버지에게 대한 나의 마음을 지워버리기로 했다.”

수련의 속마음 소리가 갈등의 심화를 보여준다.

<해운동의 두 가정>의 A 가정의 갈등 또한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깊어만 간다. B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난 이후 눈치 없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하소연하기 시작한다.

“우리 별이는 아버지 없는 애나요? …(중략)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당신의 길을 왜 나만이 이해하며 따라가야 하는지, 전 이제 못 참겠어요. 제가 뭐 큰 걸 바라나요. 당신의 시간에서 조금만 떼 내서 가정에 돌려주길 원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마저 못 들어주나요. 전 지금껏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어요. … (명절에) 나만은 아버지를 찾는 별이를 껴안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저의 심정이 어땠는지 당신은 생각이나 해봤나요.”

남편은 말이 없다. 다음날, 아내는 돌연 가출한다.

해소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두 가정 모두 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마음을 푼다. 왜 그들이 연구에 그토록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었기 때문이다. 수련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는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에서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인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나라가 허리를 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를 실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의 임무가 아니겠소 … 그러다보니 당신도 살뜰히 보살피지 못했고, 아이들도 품 들여 키우지 못했구려 하지만 과학을 위해 한 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긍지스러운 삶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오늘의 고생을 웃으며 이겨가는 거야” 수련은 깊은 생각에 빠진다. 끝내 아버지가 연구에서 결실을 맺고, 수련의 꿈이었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자 수련은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다.

A 가정의 아내가 가출한 사이, 남편은 일과 가사를 둘 다 도맡아 한다. 몇일 후 집으로 돌아와선 남편이 노력했다는 것을 느꼈고 남편의 사과를 듣는다. 남편의 사과는 이러하다.

“난 당신이나 우리 별이에겐 정말 죄스럽게 그지없소. 하지만 지금 내 심정은 뭐 편한지 아오. … 장군님 곁에 문건들이 쌓이고 쌓이고.. … 가뜩이나 아픔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것이 소원이오. …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험한 길만 걸으시며 하루에 단 두 시간도 주무시지 못하신다는데.. 그 품에서 태어난 숯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장군님을 이렇게 맞아야 옳겠소. 아니, 난 그럴 수 없소. 난 장군님의 공학자로서 그의 앞에 더해지는 심려를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겠단 말이오.”

이후 두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과학연구에서 성과를 내며 최종적으로 갈등이 해소된다. (사진 5 참고)



사진5 <해운동의 두 가정> 1:28:08

4. 가정을 관찰하면 메시지가 보인다!

<한 녀학생의 일기>와 <해운동의 두 가정>의 가정 A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 과학자인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가정의 모습이다. B 가정은 갈등의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두 영화를 관통하는 두 번째 유사지점은 바로 가정 내 역할들의 모습에 있다. 이 장에선 아버지, 어머니, 딸(자식)을 분류해 영화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 역할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각 역할들이 가지는 함의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할 것이다. 이를 총합한 메시지 전달은 4.4 그래서 수령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4.1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두 영화에서 아버지는 갈등의 원인이다. 가정 구성원은 아버지에게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을 느낀다. 두 영화를 총합해보면, 영화엔 긍정적인 아버지상과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존재한다. 긍정적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것은 <한 녀학생의 일기>의 아버지와 <해운동의 두 가정> A 가정의 아버지이다.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아버지 상은 B에 해당한다. <해운동의 두 가정>은 영화를 보는 사람에 따라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과 가정의 일을 둘 다 소홀히 하지 않는 가장이 이상적인 가

장이다'라는 메시지를 교훈으로 읽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3.1 영화를 간략히 소개하자면에서 언급한 북의 영화에 대한 주장(“이번에 제작된 영화가(해운동의 두 가정) 가정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려는 한 과학자의 가정과,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다른 가정을 대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을 보여준다”)을 떠올려보면 영화가 의도한 것은 B 가정의 아버지를 부정적인 사례로 제시해 교훈을 제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영화에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대립 혹은 대비는 전형적으로 쓰여 온 기법이다. (안지영, 2011:240)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과학자이지만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진6과 7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2장에서 언급한 주체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 장에서 방점을 찍어 볼 주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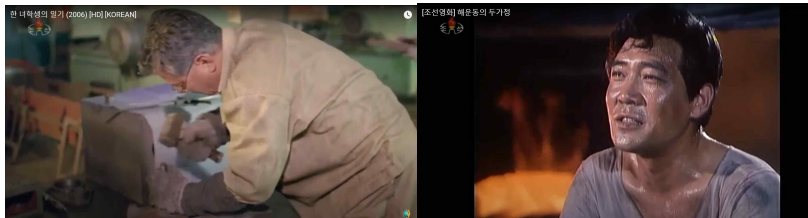


사진 6 <한 녀학생의 일기> 59:49 사진 7 <해운동의 두 가정> 1:04:23

의 특징은 북한에서 상징하고 있는 주체의 인간형이 혁명적 '남성'에 있다는 점이다. (안지영, 2015:61) 그렇다면 핵심 선전 도구인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재현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수령의 정치적 생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혁명가이다. 영화를 이끄는 갈등의 시초인 연구 매진은 북조선을 위한, 그리고 수령의 근심을 덜기 위해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정에 소홀함을 인지하고 미안한 감정도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가족의 따가운 눈초리와 원망도

견뎌내야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개별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체적 행위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실현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하고 성공한다면, 결국 가정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줄 것임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아버지상은 개인의 행복을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이익, 개인의 가정에서 찾는 사람이다. 사진 8이 <해운동의 두 가정>의 가정 B 아버지이다. 언뜻 보아서는 자식과 다정다감하게 놀아주는 이상적인 아버지 같이 느껴진다. 또한 실제 영화에서 B 가정의 아내는 많은 주



사진 8 <해운동의 두 가정> 36:00

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과 영화 제작자의 입장은 우리와 다르다. 가정에만 신경쓰고 연구를 소홀히하는 B 가정의 아버지는, 절대 좋은 아버지, 좋은 남성이 아니다. 수령님이 하사하여 주신 정치적 생명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회의 주체적 '남성'이 아니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B 가정의 갈등의 이유는 남성이 당의 은덕에 보답하지 않음 즉 연구에 매진하지 않음에 있다. 결말에서 B 가정의 갈등이 해소 될 때에 앞으로 B 아버지가 연구에 매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을 보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아버지 상은 A 가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4.2 이 시대의 현모양처, 어머니

앞선 아버지에 대한 설명에선 대비되는 두 모습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두 영화를 망라하여 보아도 어머니 상은 공통적이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어머니상은 무엇일까?



사진 9 <해운동의 두 가정> 9:49

첫째,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다. <한 녀학생의 일기>의 어머니와 <해운동의 두 가정>의 가정 A의 어머니는 연구에 매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남성의 자리를 메우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사진 9는 남성이 해야 한다고 젠더화 된 일인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쳐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둘째, 남편의 연구를 살신성인으로 돕는다. <한 녀학생의 일기>의 어머니는 남편의 연구를 위해 밤을 새워 번역 작업을 하다가 병이 들어 요양원에 간다. 사진 10은 요양원에 간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 요양사와 갈등을 빚는 장면이다. 내 몸보다 남편의 연구를 돕는 것이 당장 더 중요하다. 사진 11은 <해운동의 두 가정>의 B 가정의 아내가 상관이 남편에게 연구해보라고 준 연구들이 너무 해져서 남편을 위해 책 커버를 직접 만드는 장면이다. 작업은 새벽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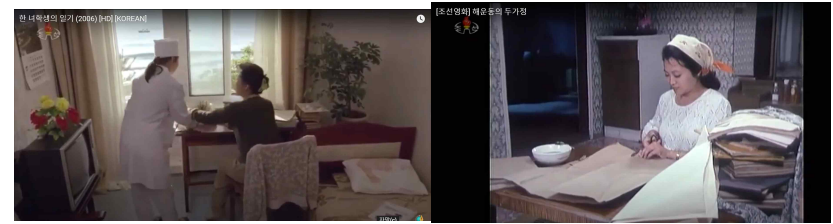


사진 10 <한 녀학생의 일기> 1:15:05

사진 11 <해운동의 두 가정> 28:27

가정 B의 남편이 영화 속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B 가정의 아내는 매우 이상적이다. 남편이 주체형 인간에서 탈선하는 것을 바로잡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만 신경쓰고 연구에는 매진하지 않는 일을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당신 지식이 당신 부모들이 물려준 건가요 아님 당신 돈으로 얻은 건가요. 남이 밥을 먹을 때 죽을 먹는 게 설움이 아니라 남이 조국을 빛내고 영광의 단상 위에 오를 때 그 밑에서 자책의 박수를 치는 그런 가정이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예로부터 사랑에는 보답이 있고 믿음에는 충성이 따라야 한댔어요. 그런데 당신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었던 말이에요. ... 한 쪽에선 아름다운 내 나라 강터와 우리 붉은기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칠 때 옆집에 사는 당신은 자기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이니 옆 집에 사는 두 사람의 아내는 과연 사람들 앞에 어떤 얼굴로 나서게 될지 당신은 생각이나 해봤어요? ... 정말이지 난 그렇게 훌륭한 남편과 사는 별이 엄마(A가정의 아내)가 부러워 못 살겠어요.”

이 장면 이후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 대사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많다. A가정의 남편이 이상적인 아버지이자 남성임을, B는 그렇지 못 함을 다시 확인해준다. 또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함이고,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위함이다. 이 대사를 던지는 여성은 남편이 옳은 혁명가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헌신하며 이끄는 혁명가이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상을 '현모양처'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검토한 안지영의 논문은 영화가 제시하는 현모양처 어머니상에 더 힘을 실어준다. 안지영의 논문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여성상과 여성 정책들이 '혁명적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위 논문에 따르면 혁명적 현모양처란 첫째,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당이 제시한 연구를 완수하는 데 앞장선다. 둘째, 집안 생계를 꾸려간다. 셋째, 자녀를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혁명가로 키운다. 첫째와 둘째는 필자가 앞서 영화로부터 끌어낸 공통 역할과 직결된다. 셋째에 대해선, 두 영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녀학생의 일기>의 딸이 성공적으로 '이과'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세 번째 역할의 성공을 영화가 암시한다고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일관되고 이상적인 혁명적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4.3 불만 가득, 그래도 할 건 하는 딸

자식에 대한 논의는 <한 녀학생의 일기>의 주인공인 딸에 국한될 것 같다. <해운동의 두 가정>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다. 대략 7-8세 정도로 추측된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녀학생의 일기>의 딸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유의미하다.

<한 녀학생의 일기>와 <해운동의 두 가정> 가정A의 자식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그리워한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아버지의 부재에 낙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녀학생의 일기> 첫째 딸 수련은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접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병 걸려서 요양가는거 아버지가 알기나 해요? 집에 와서 못 하나 박을 생각 안 하는 인정 없는 아버지, 난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등의 대사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은 영화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짐하고 수행한다. 첫째, “나는 마음 먹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세대주 구실을 하리라고.” 아버지가 연구 때문에 바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어머니를 도와 세대주 역할을 하겠다 다짐한다. 소녀 가장의 모습이다. 소녀 가장은 북한 영화나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녀상이다. 북에서 흥행한 영화 <우리집 이야기>, <꽃 파는 처녀>도 소녀 가장을 주인공으로 한다. 집안이 흔들린다면, 이유불문하고 가정을 돕겠다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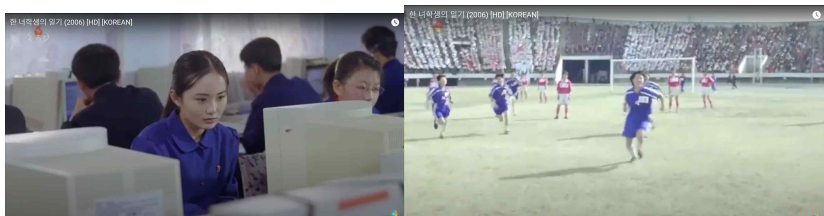


사진 12 <한 녀학생의 일기> 49:4

사진 13 <한 녀학생의 일기> 1:14:33

둘째, 새 시대의 혁명군이 되고자 노력한다. 사진 12는 첫째딸이 과학 공부를 하는 모습이다. 과학자로서 가정에 소홀히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과학 공부에 열심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개별 가정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가정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둘이다. 생물학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정치적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있다. 전자의 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도, 후자의 아버지는 원망스러울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께 효를 다 해야 하고, 그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 나라를 이끌어갈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사진 13은 둘째 딸 수옥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다. 북한에서 스포츠, 특히 축구가 중요한 사업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축구는 현재 과학자인 아버지의 못 다 이룬 꿈이기도 하고, 수령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꿈이기도 하다. 위의 맥락과 같이, 또 다른 아버지를 위해 혁명가가 되어야겠다 !

현재 북한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분야가 과학 연구와 스포츠이다. 그리고 영화의 두 '딸'은 이 국가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 영화엔 굳이 딸이 등장하였을까? 아들일 수는 없었을까? 남매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 끝에 얻은 답이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 녀학생의 일기>는 꽤 최근에 제작된 영화이다. (2007년) 과거부터 고수되어 오던 혁명의 주체는 남성이라는 시각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도

혁명적 일꾼이 될 수 있다. 여성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남성을 돕는 일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것이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혁명은 가정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한계이지만, 딸은 다르다.

결과적으로 <한 녀학생의 일기>에 나타나는 두 딸은 아버지의 부재를 원망하고 슬퍼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의 부재를 메우고자 노력한다. 또한 조국을 위해 혁명군이 되고자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별 가정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사회주의 대가정을 위해 할 건 해야 하는 주체이다.

4.4 그래서 수령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뭐라고요?

수령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는 단계까지 왔다. 나와 함께 찬찬히 맥을 짚어온 독자라면, 이쯤이면 수령의 메시지를 파악했을 것이라 믿는다. 수령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북한 영화 속 가정의 각 역할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딸은 딸의 역할을 따라 하라! 이 개별 가정들이 모여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만들어 낼 터이니.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주체적 혁명가가 되어 사회주의 대가정을 만들자'이다. 주체적 인간과 사회주의 대가정을 설명했으니, 이제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였길 바란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개별 가정이 사회주의 대

가정의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현이 결국 공적인 영역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되어선 안 된다. 개별 가정이 주체적 혁명가로 뚝뚝 뭉치려면, 어머니, 아버지, 딸 모두가 주체적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하더라도 연구에 매진하라. 수령이 부여하는 정치적 생명을 실천하고 보답할 가정의 대표이다. 연구에 매진해 성공하면, 가정도 그대를 이해할 것이고, 국가도 그대를 인정할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저 믿고 헌신하라. 남편이 주체적 혁명가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해라. 이에 더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식을 새 시대의 혁명가로 키우는 일이다.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혁명적 어머니의 모습이다.

딸(자식)은 어머니를 도와 가정의 가장이 되어라. 아버지는 집안의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곧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니, 가정을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위해 연구하시는 아버지에게 서운해 말라. 네가 당장 해야 하는 일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매진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혁명가는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있으니 기회는 열려있다. 열심히 하는 자만이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모이면 우리는 세계 제일의 사회주의 대가정, 화목한 우리 가정이 될 것이다!’

정도가 수령님이 하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 싶다. 수령님은 영화라는 확성기를 들고 꽤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우리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해 부국강병 해보자!’

나는 수령님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적어도 한 가지는 더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어느 가닥도 선행연구를 통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다. 그저 저자의 짐작일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다. 가끔 어머니로 비유되기도 하나, 아버지가 더 통념적이다. 이에 대해선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구별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젠더적으로 구성된 이상적 아버지, 남성애에 대한 이미지도 투영되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는 수령이 국가 독재를 하며 인민을 돌보지 않는다고 무수한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 연구며, 과학 연구며 열심히 하지만 아직 세계 유수의 나라들을 제치고 올라설 만한 그들만의 무언가는 부재한다. 따라서 여력이 없어 인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고, 인민이 그러한 수령에 하나 둘 지쳐가며 등을 돌리는 것도 현실로 추정된다. 두 영화에서 재현되는 아버지를 보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일과 사과를 떠올려보자. 국가 발전을 위해 물리적·정신적 노동을 오가지만 사랑의 공간으로 범주화되는 가정에 잘 오지 못한다. 오랜 시간 매진해온 과학 연구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가정은 그런 아버지에 지친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는 사과한다. ‘나도 내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안다. 하지만 나에겐 그럴 수 없었던 이유들이 존재한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국가 발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나는, ‘수령과 당국이 영화를 통해 조심스럽게 인민에게 사과를 건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보았다. 영화의 결말이 연구 성공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이 다시 화목해진 것처럼 우리의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도 언젠가 성과를 이룰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인민들이 우리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를 통해 인민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사과와 부탁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게나마 존재했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두 영화를 보면서 나는 느꼈다.

나의 자그마한 감상을 독자들이 받아들일지, 비판할지는 독자의 몫이다.

5.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까지 아버지 수령님이 영화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메시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영화 속에서 가정 내의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절정에 이르며, 해소되는지 과정을 짚으며 두 영화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영화의 소재는 가정이었고, 가정 내 역할인 아버지, 어머니, 딸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혁명적 주체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수령은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며, 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효과적이었는가?'가 그것이다. '북한 사회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북한의 개별 가정 구성원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선 물리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 되었다는 이유로 알 수 없다. '그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예술로서 향유하고 있는 것인지, 영화는 선전의 따분한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해선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예측해볼 수는 있다. 북한에서 <한 녀학생의 일기>가 흥행했다는 점,(100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는 기사이지만 믿어보기로 하자.) 실제 영화를 보면 외부자인 나도 웃을 수 있을 만한 유머 장면들이 삽입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북한 영화는 인민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은 영화를 보며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영화의 교훈을 전달받는다.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다면, 북한 영화는 수령의 확성기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셈이다. 따라서 저자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영화를 통한 선전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한 권의 책을 펴내기 위해 장장 한 학기라는 시간이 들어갔다. 그 시간 동안 북한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한 관점만을 정하고 취하고 싶진 않다.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한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꽤 억울할 것 같다. 다음 달의 내가 다르고, 내년의 내 모습이 다르듯이. 학교라는 공간 속의 나와, 가정 속의 내가 다르듯이. 난 시간과 공간과 문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도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 국가도 시시각각 변한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도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어쨌거나 틀에 갇힌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상상해볼 수 없다. 난 북한에 대해, 북조선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늘 상상해보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늘 상상해봤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지만, 늘 변하고 있는 그 곳에 대해 말이다.

참고문헌

- 노혜미, “북한 예술영화에 나타난 ‘사회주의대가정론’ 연구”, 2008,
안지영, “북한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상 연구”, 통일인문학, 2011,
pp.233-261
안지영, “북한 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현대북한연구, 2015,
pp.46-89
이명자, 『북한 영화사』, 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명재, 『북한문학사전』, 1995, 국학자료원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어서와 북한영화는 처음이
지』, 2019, 늘품플러스
전영선, 2008, “이야기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정당화 연구 - 총서 ”
불멸의 련사“와 영화 <조선의 별>을 중심으로 ”, 2008
최대석, 현인에 “주체사상의 재인식: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2007, 북한연구학회보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 <사회주의 대가정>,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ryMenuId=MENU_19.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 정치군사분석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해운동의 두 가정> 제작>,
1 9 9 6 . 8 . 1 6 . ,
<https://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NK chosun, <北.과학자 가정 소재 영화 제작>,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